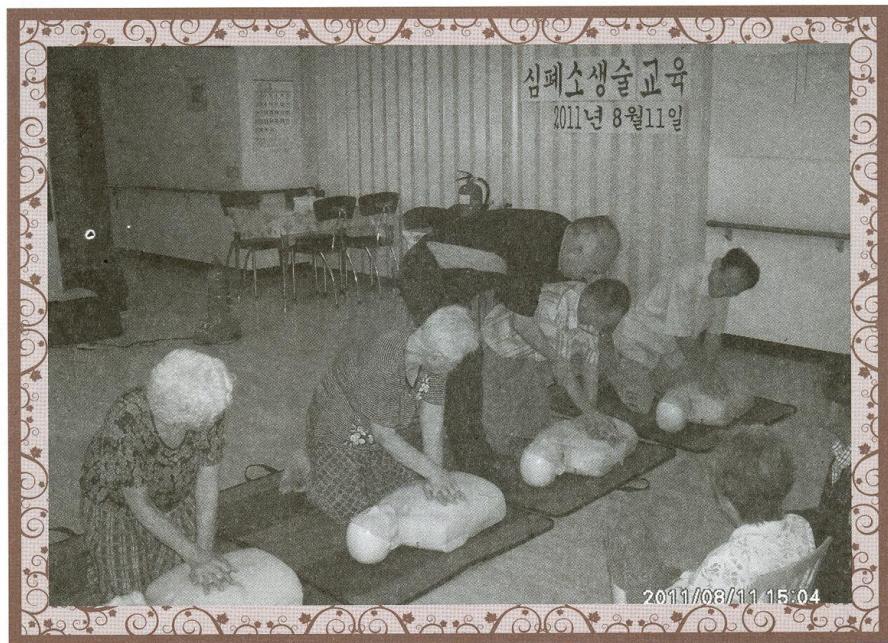


보살의 길

2011년 가을호 제 46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O2

직원의 글



어느 소방대원

홍순의(생활지도원)

8월 11일 구로구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강의가 나왔다.

세명의 대원이 나왔고 그중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어르신들에게 강의를 해주었다.

글 청탁을 받고 무엇을 쓸까 생각하던 중 어르신들에게 열심히 소방교육을 했던 이름도 모르는 한소방대원이 생각나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여러해 동안 양로원에선 구로소방서에서 교육을 요청했으며 그중 이번에 오신분이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었다. 소방서에서 교육담당을 하고 있는지라 여러 시설들을 다니며 교육을 담당하고 있겠지만 연세가 많아 귀도 어둡고 눈도 잘 보이지 않으며 관심 없는 얼굴로 앉아 계신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여간 곤욕이 아니였을 것이다. 그래도 준비한 화면을 보시며 시종 어르신들에게 재미있는 경험담을 섞어 가며, 실제로 몸으로 보여도 주시며 열심히 강의하는 소방대원을 보면 전문가다운 면모를 볼 수 있어 보는 동안 내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다.

양로원에 13년 전에 입사했다. 지금 이순간 난 13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본다.

어르신들 앞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던 나이 지긋한 소방대원을 생각하며 나도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나 생각해 본다.

아마도 13년 전의 나는 어르신들을 열심히 모시리가 다짐하며 입사를 했을 것이다.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

열심히 자기의 직무를 다하여 보는 이에게 빙그레 웃음을 주었던 어느소방대원처럼 나도 어르신들에게 케어 이상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여 빙그레 웃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해 본다.



실습 후기

설보경(관동대학교 시간제 학생)

사회복지수업을 들으면서 실습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나는 솔직히 막막했다. 120시간의 의무 실습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실습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별도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알아 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나는 오후시간 내내 생업을 해야 하는 직장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시간대 및 생활 주기에 맞는 사회복지시설을 찾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주위의 여러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본 끝에 나는 혜명양로원을 나의 첫 복지실습기관으로 선택했다.

종교인이 원장으로 있어 기타의 기관보다는 투명하고 공평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먼저 어르신들을 도와 드려봐야 진정한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방문하였을 때는 시설이 낯설게 느껴지고, 입소하신 노인분들의 무표정과 침묵이 어색하기만 했다.

하지만 하루 세시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켜야만 했다.

내가 양로원에서 맡았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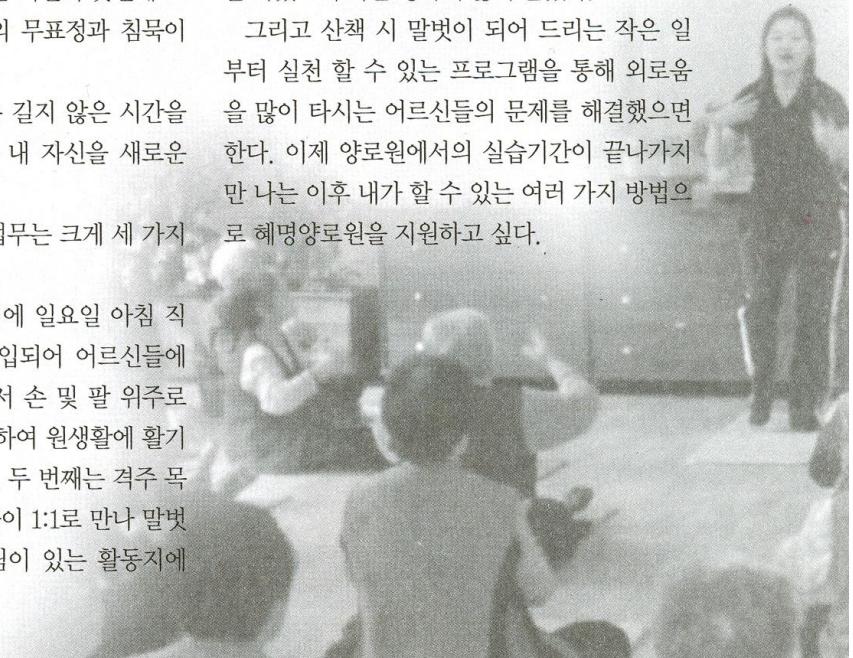
먼저 전공이 에어로빅이기에 일요일 아침 직원들이 하는 체조시간에 투입되어 어르신들에게 격렬한 동작보다는 앉아서 손 및 팔 위주로 할 수 있는 좌식체조를 진행하여 원생활에 활기를 넣어 주는 역할을 했으며, 두 번째는 격주 목요일 자원봉사자와 어르신들이 1:1로 만나 말벗을 하는 민들레 모임에 그림이 있는 활동지에

종이접기와 색칠을 하는 미술활동을 준비하여 진행해 보았다.

나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림의 외곽선을 짜 임새 있게 준비하여 전체적인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색칠을 하시고 종이접기를 하며 자원봉사자와 즐거워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런것이라고 아주 살짝 느껴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어르신 케어와 시설내부의 속소와 화장실 청소 등 환경미화였다. 어르신 중 용변 조절이 안되는 분이 있어 기저귀 케어를 처음 해보았다. 이런 활동을 통해 내가 느낀 점은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가미된 프로그램이 시스템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다수 보유하여 특별히 할 일 없이 지내시는 시간을 막았으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산책 시 말벗이 되어 드리는 작은 일부터 실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이제 양로원에서의 실습기간이 끝나가지만 나는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혜명양로원을 지원하고 싶다.



04 • 봉사자의 글

봉사의 즐거움

이 소영(동대부고 반야회 7기)

햇살이 참 좋은날

단풍의 화사함과 커피향, 잔잔한 바람. 파란하늘~

조금 먼 거리지만, 한 달에 한번 세째주 목요일 작은 즐거움이 하나 생겼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만나는 기쁨과 어르신들이 계시는 혜명양로원에서

땀 흘림의 진실함을 알게 되었다.

마흔의 끝자락에서 노후를 생각하던 나에게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

그리고, 그런 분들이 편히 쉬시는 곳과의 만남을 신선한 일이었다.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선생님들, 주방아주머니들 많은 분들의 후원.

여름날 흐르는 맘을 닦으며 계단과 욕실을 닦고, 어르신들이 드실 야채를 다듬고 씻으며,

때론, 후원물품을 정리하면서... 세상은 아직은 참 살만하고,

좋으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다.

단아한 모습의 할머님들, 인자한 미소의 할아버님들.

우리의 아주 작은 수고지만, 그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너무 큰 것이 아닌지...

혜명양로원에서 한 수고보다 우리가 받고 가는 것들이 정말 많다.

항상 애쓰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그곳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몸과 맘이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혜명한마당



| 국악공연관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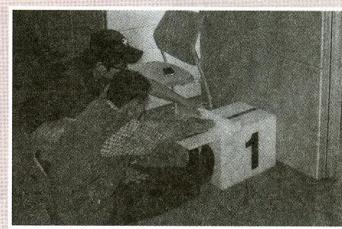
7월 13일 금나래아트홀에서 하는 국악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민요와 춤, 사물놀이와 상모돌리기 등 흥겨운 우리공연을 보며 우리어르신들 즐거운 시간을 가져습니다.



| 결핵검진 |

7월 19일 대한결핵협회에서 내방하여 입소어르신 전원에게 결핵검진을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모든 어르신들이 정상으로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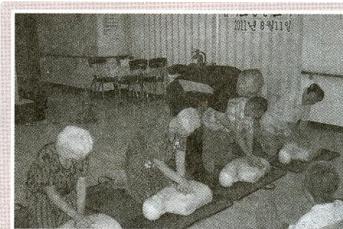
| 체력측정 |

7월 13일 금천구청 강당에서 입소어르신 11명이 체력측정을 받았습니다. 개인별로 13개 종목의 일상생활체력 검사를 측정 받았고 그 결과 체력연령을 평가 받았습니다.



| 생신공연 |

8월 생신공연은 금천문화원에서 나왔습니다. 무용과 민요, 댄스 등으로 이루어진 공연은 우리어르신들을 위해 준비된 공연이었습니다. 금천문화원 무용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심폐소생술 교육 |

8월 11일 직원과 어르신들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전기안전 교육으로 이루어진 교육은 우리생활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직원소양교육 |

8월 22일 직원소양교육을 받았습니다. 늘 바쁜 일상의 연속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지내다 짐표를 하나 찍는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이택상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추석제사 |

9월 12일 추석아침에 어르신들이 합동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 작업치료 |

금천치매지원센타에서 매주 화요일 2시 6명의 어르신들이 작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 12회기로 다양한 치료기법을 활용하여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중입니다.



| 바자회 |

9월 30일 같은 재단의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비자회를 하여 양로원도 참가하여 함께 했습니다. 입고된 후원품 중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을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하며 양로원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혜명동정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 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 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직원현황

- ▶ 총 17명
- 원장 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 간호사 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생활지도원 5명 / 물리치료사 1명
-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3명

입소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 증명사진 4장
- 우리은행 통장
- 주민등록증. 도장

현재 입소인원 (9월 30일 기준)

▶ 총 64명 (할아버지 : 28명 할머니 : 36명)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권리 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 | |
|------------------------------|--------------------------------|
| 1. 국가에 이바지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10. 시설 내 ·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

자원봉사자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이승희, 민경숙, 소미숙, 최윤금, 박영숙, 유미애, 유른경, 한미정, 양영진, 김경은(밀그림색칠), 문덕녀(대림미용실), 임호순외6명(치과진료), 금천보건소, 조규용, 윤소원, 조맹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 오정은(건강체조), 백련사율림회, 묵향법사, 지영옥, 최미자, 이순교, 김덕순, 정지윤, 황득효, 임길자, 황복순, 이금분, 민귀남(찬불가봉사팀), 오정자(아코디언), 이유숙, 이미화, 송영순, 주양희, 신종일, 박현주, 박향자, 신경이, 황현숙, 박지혜, 정진숙, 안형준, 김종윤, 박상준, 최태영, 김재형, 이준호(반야회5기), 박미란(발벗), 김동섭, 한은옥, 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안성수(우담바라), 이정순, 고병님, 권영순, 김미정, 박미옥, 전선순, 소미숙, 한종님(민들레모임), 조청길, 양병순, 남숙호, 장재창, 현군자(수지침), 이강택, 양승학, 임효정, 황명이, 이정애, 한미옥(알송달송구연동화), 백은자, 장은정, 이은경, 변상숙, 이영미, 임은영, 민현숙, 정용경, 이효숙, 김계숙, 한성아, 흥성정, 김민순, 김용자, 정수정, 이은순(반야회6기), 오광숙, 조정미, 한미숙, 우양숙, 윤정숙, 흥종임, 김준희, 최은경, 이소영, 김현숙, 양선애, 장은아, 흥은정, 김경일, 이은미, 박미연, 김윤주, 천영희, 이명수, 심경희(반야회7기)

후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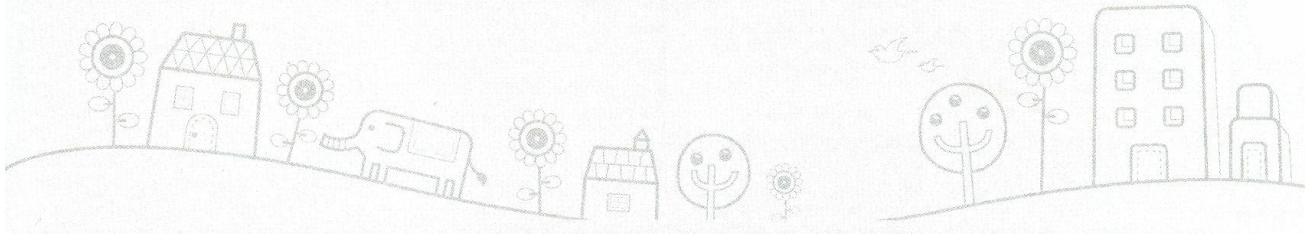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는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후원물품

복천선원, 서서울생활과학고, 금천푸드뱅크, 박미연, 흥사랑, 독지가, 보명사, 백련사, 주정연(실습생), 안양스님, 정주행(백성례), 유동곤, 입소자 지인, 인천보살님, 백산지구대, 금천구의회, 샛별어린이집, 사랑의실천운동본부, 반야회 6기, 찬불가혜명회, 광동제약, 문백초등학교6-4, 민들레모임, 알송달송공연팀, 금천문화원, gs리테일, 민주평통서대문협의회, 박재근원장님

후원금품

윤재순 90,000	박성수 90,000	최형기 30,000	권기상 150,000	문금자 30,000	구봉순 40,000
이정호 10,000	임옥수 100,000	구충수 100,000	이애자 20,000	한진택 300,000	백승풍 40,000
양혜선 30,000	강윤호 100,000	독지가 294,500	박혜정 10,000	구희관 30,000	양보금 20,000
안효주 600,000	기업은행 900,000	마희전 70,000	박세진 30,000	이순자 60,000	황준순 15,000
김송희 5,000	남분식 150,000	황재욱 15,000	조방희 10,000	박성자 15,000	주은미 10,000
이마트 7,546	백성례 500,000	차석 10,000	박두영 200,000	구수미 400,000	
서현종스님 30,000	남부교도소 200,000		(주)한국거래소 60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 · 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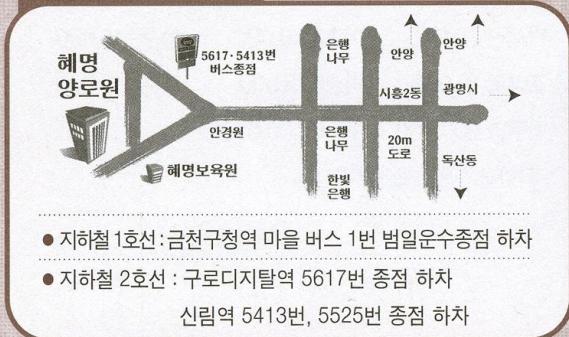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지로번호 : 7655940
-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예금주 : 혜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마을 버스 1번 범일운수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5525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재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